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

### 10월 31일까지(7개월)로 조정...당초 보다 1개월 연장 기간변경 시 150만 명 내외의 관광객 확대 효과 기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봄꽃 개최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변경한다.

이는 당초 계획(2023. 4. 22. ~ 10. 22.)보다 개막은 21일 앞당기고 폐막은 9일 연장하는 등 총 1개월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변경을 통해 150만 명 내외의 관광객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최일은 변경한 배경에는 정원 관광이 주로 봄가을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을 상징하는 봄꽃과 튜립의 개화 시기가 4월 초까지 앞당겨지는 등 박람회 기간 조정 필요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에 정원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2013박람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원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핵심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원과 동천저류지를 물길(벚길 복원)과 도보길(강변로 그린웨이)로 연결하고 저류지를 독일의 본 저류지에 버금가는 녹색 정원으로 바꾸어 갈 계획이다.

둘째, 연향들, 풍덕들 등 도심 곳곳에 꽃, 유색미 등을 심어 경관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 정원 후방산업 육성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국가정원은 호수정원, 개울길 등 기존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식물원과 미래정원, 캠핑장(가든스테이) 등 새로운 콘텐츠도 확충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도비 1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13박람회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만들었다면, 2023박람회는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 순천을 탄생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직위는 물론 순천시의 역량을 2023박람회 성공 개최에 모두 쏟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김승호기자

## 고흥군, 드론 중심도시 향한 힘찬 발걸음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고흥 드론산업의 청사진 선보여



고흥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를 참가해 고흥의 우수한 드론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기업 유치활동에 매진했다.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고흥군은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영농 실증·확산사업'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공영민 군수는 드론 기업 전시 부스를 순회하며 고흥군의 우수한 드론산업 인프라를 직접 소개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육군·해군·공군 전시관을 찾아가 고흥에서 드론 실증 및 시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5G 통신망이 구축되어 드론을 운용하게 되면 전국 최대 규모의 공역(직경 22km),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고흥 드론센터, 고흥 항공센터 등과 더불어 드론산업 중심도시로서 고흥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수시,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길라잡이' 성료 학생 200명 참여...자원봉사 기본교육·탄소중립 플로깅·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여수시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길라잡이'를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에 걸쳐 8회기로 진행됐다.

먼저 자원봉사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교육에 이어 ▲탄소중립 실천 플로깅 ▲폐 현수막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찜질팩 만들기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1365아이스팩 파워치 만들기 ▲광복절을 기념한 독립운동가 배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아이스팩과 찜질팩, 독립운동가 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준 청소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다가서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다양한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광양시, 재담소리극 '팔도보부상' 선보여

28일 오후 4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광양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재담소리극 '팔도보부상'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재담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광양시가 공동 주관한 2022년 전통공연 예술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래하는 여성용, 탈춤 추는 박인선, 음악천

재 허동혁이 함께하는 팔도보부상은 재담(재미있는 이야기)에 민요와 탈춤, 전자음악을 곁들여 관객과 호흡하며, 공연 내내 신명 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은 △MASK △장타령 △각색장사치 △벚꽃노래 △자진아리 △금의환향 △노래도깨비로 진행되며, 특히 '금의환향'은 지방에서 나와 자라 서울로 상경해 대학 공부하고, 세간의 인정을 받아 소리꾼이 된 팔도보부상 여성용의 실제 이야기다.

## '보성물' 오늘부터 추석맞이 할인행사...최대 20%

보성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물'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보성물'을 통해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명절 선물에 알맞은 풍성한 선물세트도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돼 있다. 관내 농가와 업체의 정성을 담은 '보성물' 다담다 꾸러미 선물 세트 2종(5만 원, 10만 원)도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전 품목 최대 20% 할인, 신규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